

≡ 질문 가이드

요즘 힘든 일은 없는지, 기분은 어떤지, 억울한 일은 없는지 물어보세요. 최근 자신의 상황을 나눈 후 질문에 답하면 더 좋아요. 매 순간 하나님의 뜻을 생각하면 자신이 처한 상황을 재해석하고 객관적으로 볼 수 있게 되어요(예: 친구를 만날 때, 옷을 살 때, 혼이 날 때 등).

≡ 인도자를 위한 해설

다윗은 자신의 감정이나 주변 사람들의 의견에 휘둘리지 않고 '여호와 하나님'을 기억하며 행동했어요. '하나님이 누구신지' 말씀을 통해 알아 가고 그 하나님을 기억하는 사람은 늘 하나님 뜻에 따라 행동하고 결정할 수 있어요. 하나님의 뜻에 따라 행동하고 결정할 때 내 삶의 온전한 주인은 하나님이 되시기에, 어떤 환경에 처하더라도 하나님이 주시는 평안과 기쁨과 안식을 누리며 감사하게 될 거예요.

5. 감사

하나님께 감사하는 마음을 마음껏 표현해 보세요.

6. 기도

하나님, 힘들고 불편한 일을 만나더라도 이 모든 환경을 뛰어넘어 일하시는 하나님을 기대하며 찬양합니다. 저의 감정이나 주변 분위기에 휩쓸리지 않고 하나님을 먼저 기억하게 해 주세요. 하나님 뜻대로 살도록 도와주세요.

- 주기도문으로 가정예배를 마칩니다.

7. 가족 미션

포스트잇에 '하나님의 뜻을 먼저 생각해야 할 일 두 가지'를 적고, 내가 매일 볼 수 있는 곳에 붙이세요. 그리고 그 일을 하기 전에 하나님의 뜻을 묻는 기도를 드리세요.

* 주일예배 준비하기

가정예배를 마친 후에는 함께 주일예배를 준비합니다.

1. 부모는 자녀에게 주일의 중요성과 예배의 소중함을 일깨워 줍니다.
2. 마음으로 주일예배를 준비합니다.
3. 하나님께 집중하도록 주일에는 가급적 다른 일을 만들지 않습니다. 하나님 앞에 드릴 헌금을 정성스럽게 준비합니다.
4. 단정한 옷을 준비합니다.
5. 하나님이 기쁘게 받으시는 주일예배가 되도록 기도합니다.

- 본문 말씀: 사무엘상 24장 4~7절 (3월 15일 본문)

- 포인트: 억울하고 화가 나는 상황에서도 하나님을 먼저 기억하고 하나님의 뜻에 맞게 행동해요.

1. 찬양

(새 539) 너 예수께 조용히 나가

2. 기도

사랑의 하나님, 저희와 늘 동행하시고 저희를 예배 자리로 이끌어 주셔서 감사해요. 이 시간 하나님의 영광을 누리는 예배가 되게 도와주세요.

3. 말씀

사무엘상 24장 4~7절을 함께 읽습니다(말씀을 3번 읽으세요).

<새번역 성경>

4 다윗의 부하들이 그에게 말하였다. “드디어 주님께서 대장님에게 약속하신 바로 그 날이 왔습니다. ‘내가 너의 원수를 너의 손에 넘겨 줄 것이니, 네가 마음대로 그를 처치하여라’하신 바로 그 날이 되었습니다.” 다윗이 일어나서 사울의 겹옷자락을 몰래 잘랐다. 5 다윗은 자기가 사울의 겹옷자락만을 자른 것 뿐인데도 곧 양심에 가책을 받게 되었다. 6 그래서 다윗은 자기 부하들에게 타일렀다. “내가 감히 손을 들어, 주님께서 기름부어 세우신 우리의 임금님을 치겠느냐? 주님께서 내가 그런 일을 하지 못하도록 나를 막아 주시기를 바란다. 왕은 바로 주님께서 기름부어 세우신 분이기 때문이다.” 7 다윗은 이런 말로 자기의 부하들을 타이르고, 그들이 일어나 사울을 치지 못하게 하였다.

≡ 본문 이해

다윗이 숨어 있는 동굴에 사울이 혼자 들어오게 되었어요. 다윗의 신하들은 하나님을 주신 기회라며 사울을 죽이자고 했지만, 다윗은 하나님이 기름 부으신 왕이니 해치지 말라고 했어요. 다윗은 사울에 대한 분노와 억울한 마음이 있었지만, 자신의 감정이 아니라 하나님 뜻을 먼저 생각했어요.

≡ 인도자를 위한 본문 이해

사울은 골리앗을 죽인 다윗을 칭송하는 여인들의 노랫소리를 듣고 난 이후 다윗을 시기하고 질투하게 되었어요. 시기하는 마음을 다스리지 못한 사울은 결국 다윗을 죽이려고 시도하게 되었지요. 사울은 다윗을 죽이려고 쫓아다니며 수색하다가도 블레셋 사람들이 쳐들어와서 땅을 차지하려 한다는 소식을 들으면 전쟁터에 나가 블레셋과

싸웠어요. 그런 다음 다시 다윗을 죽이려고 찾아다닐 정도로 다윗을 미워했어요. 다윗이 엔게디 광야에 있다는 소식을 들은 사울은 다윗을 잡으려고 군사 3,000명을 데려와 수색했어요. 그러던 중 사울이 용변을 보기 위해 한 동굴에 들어갔는데, 그 동굴은 다윗과 그 일행이 숨어 있던 곳이었어요(24:1~3). 무방비 상태의 사울을 죽일 수 있는 상황이었지요. 다윗의 부하들은 사울을 죽일 수 있는 하나님이 주신 절호의 기회라고 말했지만, 다윗은 몰래 사울의 겹옷자락만 베었어요. 이마저도 마음에 걸린 다윗은 ‘여호와께서 기름 부으신 왕’을 치는 것은 여호와 하나님이 금하신 일이라고 부하들을 혼내며 사울을 해하지 못하게 했어요. 다윗이 자신을 해치기 위해 밤낮 쫓아다니는 사울을 죽이지 않고 보호한 것은 놀라운 일이에요. 그의 마음에는 억울함, 사울을 죽이고 싶은 마음, 미움, 도망 다니는 삶에서 오는 외로움과 절망 등이 늘 있었겠지만, 다윗은 자기 마음보다는 하나님의 마음(뜻)을 먼저 생각했어요. 다윗은 하나님이 사울을 이스라엘의 왕으로 세우셨고, 자신은 사울의 신하라는 것을 기억했어요. 그래서 ‘내가 감히 손을 들어, 주님께서 기름부어 세우신 우리의 임금님을 치겠느냐? 주님께서 내가 그런 일을 하지 못하도록 나를 막아 주시기를 바란다’라고 말하며 부하들에게 사울을 해치지 못하도록 명했어요. 하나님은 다윗의 이런 모습을 기뻐하셨어요. 그래서 성경은 다윗이 ‘여호와와 마음에 합한 자’(행 13:22)라고 말해요.

“블레셋 사람과 싸우고 돌아온 사울은, 다윗이 엔게디 광야에 있다는 소식을 듣고, 2은 이스라엘에서 삼천 명을 뽑아 거느리고, 다윗과 그의 부하들을 찾으려 ‘들염소 바위’쪽으로 갔다. 사울이 길 옆에 양 우리가 많은 곳에 이르렀는데, 그곳에 굴이 하나 있었다. 사울이 뒤를 보려고 그리로 들어갔는데, 그 굴의 안쪽 깊은 곳에 다윗과 그의 부하들이 숨어 있었다.”(삼상 24:1~3).

“그 다음에 하나님께서는 사울을 물리치시고서, 다윗을 그들의 왕으로 세우시고, 증언하여 말씀하시기를 ‘내가 이새의 아들 다윗을 찾아냈으니, 그는 내 마음에 드는 사람이다. 그가 내 뜻을 다 행할 것이다’ 하셨습니다.”(행 13:22).

“쇠붙이는 쇠붙이로 쳐야 날이 날카롭게 서듯이, 사람도 친구와 부대껴야 지혜가 예리해진다.”(잠 27:17).

4. 나눔

1) 싸울 준비가 되어 있지 않은 사울을 공격할 수 있었는데도 다윗이 그리하지 않은 이유는 무엇인가요?(6절)

- 저학년
다윗의 부하들이 하나님이 주신 기회라며 사울을 죽이자고 했을 때, 왜 다윗은 죽이지 못하게 했을까요?(6절)

- 유아·유치
다윗은 왜 사울의 겹옷자락을 자른 것조차도 마음에 걸려 했나요?

≡ 질문 가이드

질문을 나누기 전에 사울이 그동안 다윗을 죽이기 위해 얼마나 열심을 내며 쫓아다녔는지 배경을 설명해 주세요(1, 2주 차 가정예배 배경 참고). 이런 상황에서 다윗이 한 행동을 보면 그가 삶에서 무엇을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지 알 수 있어요. 만약 내가 다윗과 같은 상황이었다면, 나는 사울에게 어떻게 했을지도 나누어 보세요.

≡ 인도자를 위한 해설

다윗의 마음에는 많은 갈등이 있었을 거예요. 사울만 없으면 자기 삶이 평안할 것 같고 더는 생명의 위협을 느끼지 않아도 되니까요. 그의 부하들조차도 지금이 하나님이 주신 좋은 기회라며 사울을 죽이자고 했지요. 하지만 다윗은 그 말에 동의하지 않았어요. 사울이 ‘여호와께서 기름 부어 세우신 왕’이라는 사실을 생각했기 때문이에요. 다윗은 자신이 느끼는 것, 자신의 비참한 현재 상태에 집중하지 않고 먼저 ‘여호와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를 생각했어요. 이는 다윗이 광야에서 지낼 때도 종일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며 하나님과 교제했기 때문이에요(시 63편). 다윗이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모르고 기억하지 않았다면 그는 다른 선택을 했을 거예요.

“하나님 주님은 나의 하나님 물기없이 메말라 황폐한 땅에서 목마른 사람이 물을 찾듯이 내가 주님을 찾습니다. 내 영혼이 주님을 찾아 목이 마르고 이 육신도 주님을 찾아 애가 타서 내가 성소에서 주님을 뵈고 주의 권능과 주의 영광을 뵙니다. 주님의 한결같은 그 사랑이 생명보다 더 소중하기에 내가 입술로 주께 영광을 돌립니다. 이 생명 다하도록 주님을 찬양하렵니다. 내가 손을 들어서 주의 이름을 찬양하렵니다. 기름지고 맛깔진 음식을 배불리 먹은 듯이 내 영혼이 만족하니 내가 기쁨에 가득 찬 입술로 주님을 찬양하렵니다. 잠자리에 들어서도 주님만을 기억하고 밤을 새우면서도 주님만을 생각합니다. 주께서 나를 도우셨기에 나 이제 주의 날개 그늘에서 주님을 즐기 노래하렵니다. 이 몸이 주님 뒤를 가까이 따르니 주의 오른손이 나를 꼭붙잡아 주십니다. 나를 죽이려고 노리는 자는 땅 아래 깊은 곳으로 내려갈 것이다. 그들은 칼을 맞고 쓰러지고 그 주검은 승냥이의 밥이 될 것이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임금님에게 승리를 안겨 주시니 우리의 임금님은 이 일로 즐거우시다. 하나님의 이름으로 맹세하는 사람들은 다 함께 승리를 기뻐하겠지만 거짓말을 하는 사람들은 말문이 막힐 것이다.”(시 63:1~11).

2) 나를 괴롭힌 친구에게 복수할 기회가 왔을 때, 내가 하나님 뜻을 생각하고 순종할 일을 한 가지 이상 기록해 보세요.

- 저학년
내 마음이나 생각보다 하나님의 뜻을 먼저 생각하고 결정했던 경험이 있다면 나눠 보세요.

- 유아 유치
내가 하나님 뜻을 따라 순종할 일을 한 가지 나누어 보세요.